

2022. 9. 5.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8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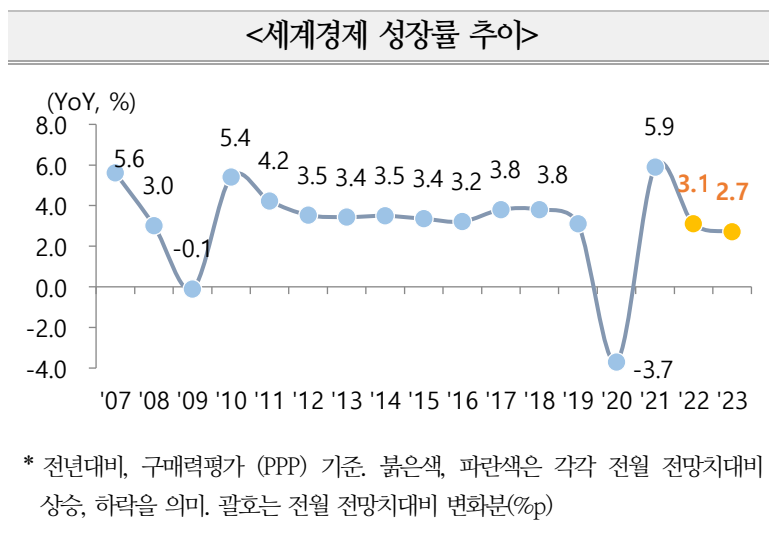
정예지 | 연구원(3705-6176)

홍서희 | 책임연구원(3705-6153)

- **세계(+0.1%p ↓):**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금년중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고물가 지속으로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소비지출이 추가로 둔화할 경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 **미국(+):** 주택경기 부진 불구 고용 증가세 유지(비농업고용 8월 +32.5만) 등으로 경착륙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 점증(JPM, Barclays)
 - 연준은 9월 FOMC에서도 50bp 이상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으며 연말까지는 약 3.5~3.75% (상단 기준) 도달 예상
- **유로존(+0.1%p ↑):** 2분기 성장률(2.5%, qoq saar)이 예상 대비 견조하여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조정되었으나 가스 수급 불안 심화 등으로 하반기 완만한 경기침체 우려(UBS, Nomura 등)
 - 8월 물가상승률(9.1%, yoy)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9월 이후 ECB의 긴축 강도 강화 전망(BofA 등)
- **중국(-0.1%p ↓):** 정부의 정책적 지원(정책금리 인하, 1조 위안 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부진(종합 PMI 6월 54.1 → 7월 52.5 → 8월 51.7)하여 금년 성장전망을 하향(3.2% → 3.0%, JPM)
 - 이상기후로 인한 남서부 전력 부족, 주택시장 위축, 코로나19 봉쇄 재연 등이 하방 요인(Barclays)
- **일본(-0.1%p ↓):** 대외경제 둔화, 공급 불안 지속, 원자재·식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Q3 4.7% → 1.6%, Q4 2.0% → 1.4%, qoq saar, Barclays)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 ^f	2023 ^f
Barclays	2.8	2.8
BNP Paribas	3.4	3.5
BoA-ML	3.1	2.6
Citi	2.9	2.3
Goldman Sachs	3.2	2.9
JP Morgan	3.2	2.2
Nomura	2.7	1.7
Societe Generale	3.2	3.4
UBS	3.0	3.0
평균	3.1(0.1)	2.7(-0.1)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1.0	1.0	0.5	0.5	1.6	0.6
BNP Paribas	-	-	-	-	1.8	1.8
BoA-ML	-0.5	-2.0	-0.5	1.0	1.3	-0.1
Citi	2.3	2.2	1.3	0.4	2.1	0.9
Goldman Sachs	1.2	1.0	1.3	1.5	1.6	1.2
JP Morgan	1.0	1.5	1.8	1.3	1.7	1.2
Nomura	0.4	-1.4	-1.6	-1.6	1.4	-1.1
Societe Generale	2.1	1.2	1.5	2.1	2.6	1.9
UBS	1.4	2.1	1.4	1.3	1.7	1.4
평균	1.1(-0.1)	0.7(0)	0.7(0)	0.8	1.8(0)	0.9(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1.4	-0.9	-0.5	1.4	3.1	0.7
BNP Paribas	-	-	-	-	2.5	2.3
BoA-ML	0.1	-0.9	-1.3	1.4	3.0	0.3
Citi	-0.4	-3.3	-3.4	0.4	2.7	-0.9
Goldman Sachs	-0.3	-0.6	1.0	1.6	2.9	0.9
JP Morgan	0.5	-2.0	-2.0	1.0	2.9	-0.1
Nomura	-1.2	-2.4	-2.0	-1.2	2.6	-1.0
Societe Generale	1.9	1.6	2.0	2.5	3.0	2.0
UBS	-0.2	-0.6	0.3	2.1	2.9	0.8
평균	0.2(-0.2)	-1.1(-0.7)	-0.7(-0.8)	1.2	2.8(0.1)	0.6(-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3.6	3.9	4.4	8.1	3.1	5.3
BNP Paribas	-	-	-	-	3.7	5.7
BoA-ML	(16.1)	(8.5)	-	-	3.5	6.0
Citi	3.9	5.0	5.2	9.8	3.5	6.1
Goldman Sachs	3.5	3.3	3.0	7.4	3.0	5.3
JP Morgan	(9.5)	(5.2)	(5.5)	(4.0)	3.0	4.6
Nomura	4.0	4.0	3.8	8.1	3.3	5.5
Societe Generale	3.5	5.5	5.0	7.5	4.0	5.7
UBS	3.1	3.6	3.2	7.6	3.0	5.4
평균	3.6(-0.3)	4.2(-0.2)	4.1(-0.1)	8.1	3.3(-0.1)	5.5(-0.1)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1.6	1.4	0.8	0.7	1.3	1.1
BNP Paribas	-	-	-	-	1.3	0.8
BoA-ML	5.9	-0.2	-	-	1.6	-0.4
Citi	1.4	1.1	1.2	1.0	0.8	1.2
Goldman Sachs	2.0	2.0	1.4	1.3	1.4	1.6
JP Morgan	1.0	3.0	1.0	1.0	1.3	1.4
Nomura	0.1	4.1	0.6	0.8	1.2	1.5
Societe Generale	3.7	2.2	1.5	1.1	1.5	1.9
UBS	2.3	3.8	1.0	1.3	1.5	1.8
평균	2.3(-1)	2.2(0.7)	1.1(0.2)	1.0	1.3(-0.1)	1.2(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6 혹은 yjju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